

00000000  
portfolio

[ 이가그룹 입사지원 ]

**[ Contents ]**

01	Lab village for start up
05	Box of communication
08	Dosshouse guesthouse

# LAB VILLAGE FOR STARTUP

## TYOLOGY OF URBAN STARTUP CLUSTER

SPRING 2019 PERSONAL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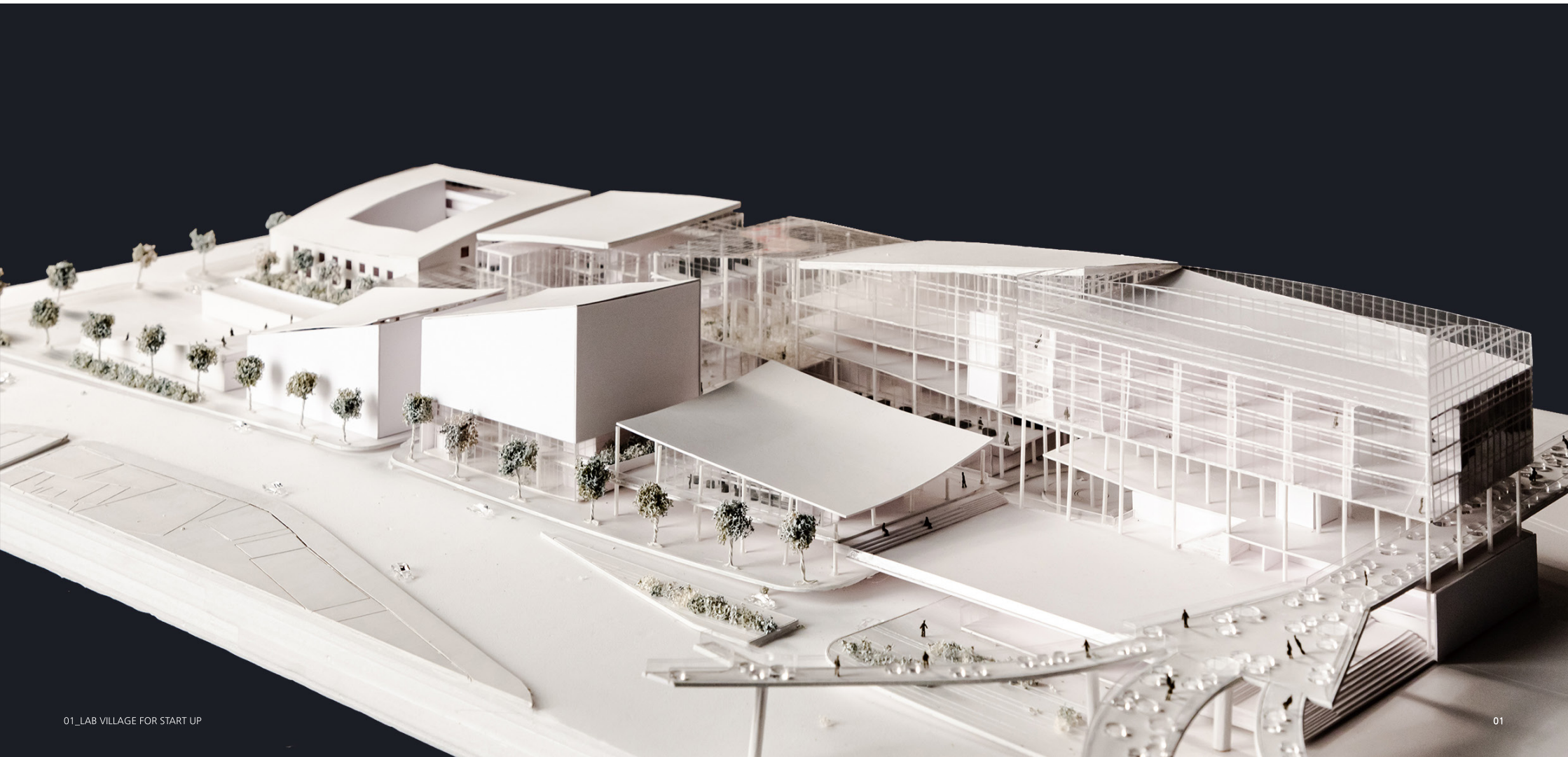
CONTENT : START-UP RESEARCH, SITE RESEARCH, URBAN REGENERATION PROGRAMMING, START-UP PROGRAMMING, LAB&SHOWROOM DESIGN, MASS DESIGN, 3D PRINTING, PLAN DRAWING, VISUAL RENDERING, ARCHITECTURAL MODEL 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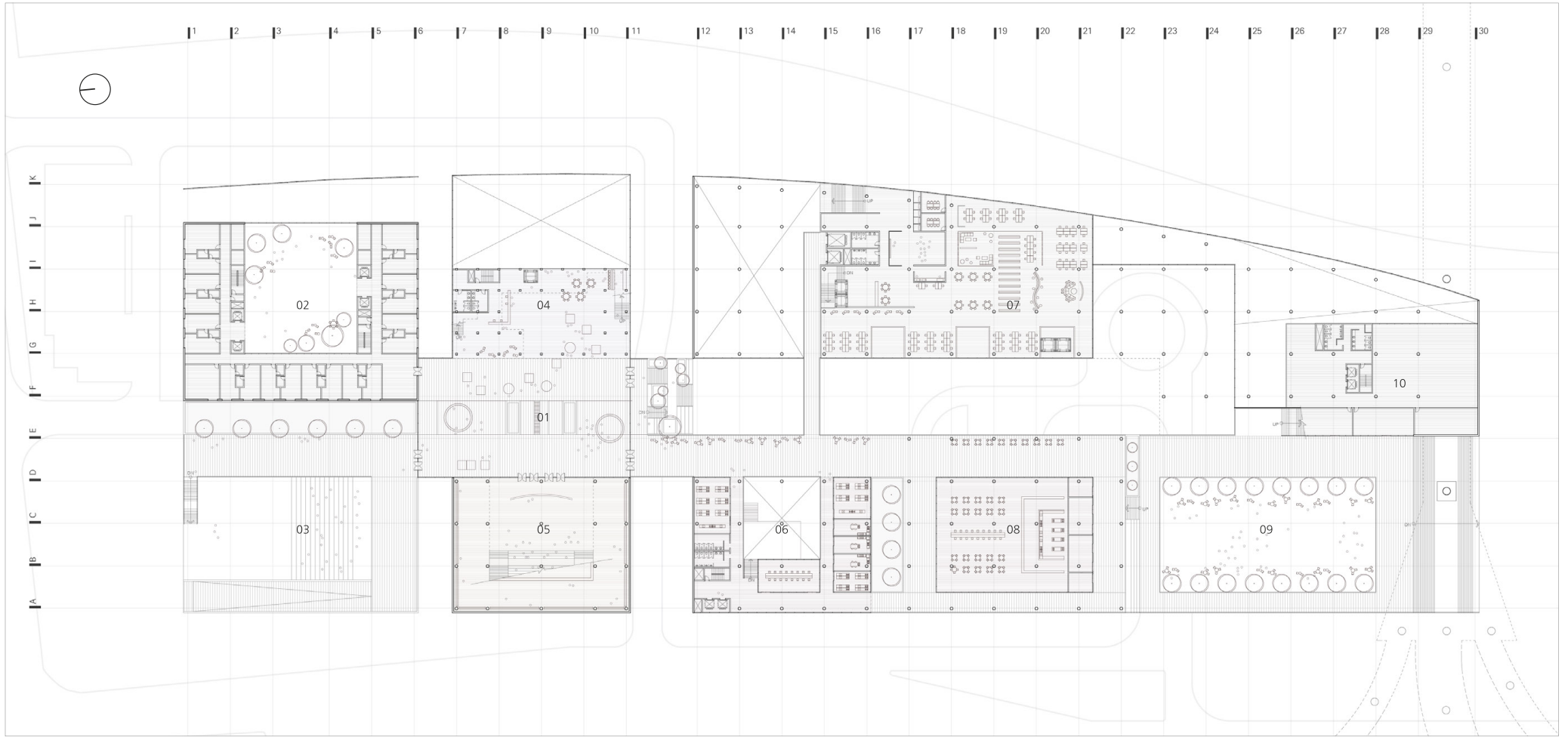
현대의 산업은 과거와 달리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쉽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국가, 지역 정부,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의 기존 클러스터는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여 서로 연계가 없고 대형 오피스 빌딩에 입주해 있어 주변텍스트와 단절되어 있다. 산업지구에 닫혀 있는 형태의 클러스터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의적 활동과 성장을 제한된다.

한세대 앞서 정착되어 있는 해외의 사례는 각 도시의 금융, 교통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투자자와 방문자 등에게 접근성이 좋다. 또한, 스타트업 오피스, 코 워킹 스페이스, 카페, 펌, 예술 공간들이 거리에 모여있고 미술, 음악, 목공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내부 기업들의 활동이 공유되는 마당과 주변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는 하나의 마을형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기술 산업과 예술, 수공업계의 경계가 없는 오픈 플랫폼의 사람들은 카페, 펌에서 자연스럽게 엮이고 코워킹스페이스, 랩 등에서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영감을 얻으며, 지역에서 관광객, 주민들과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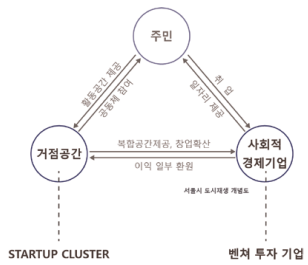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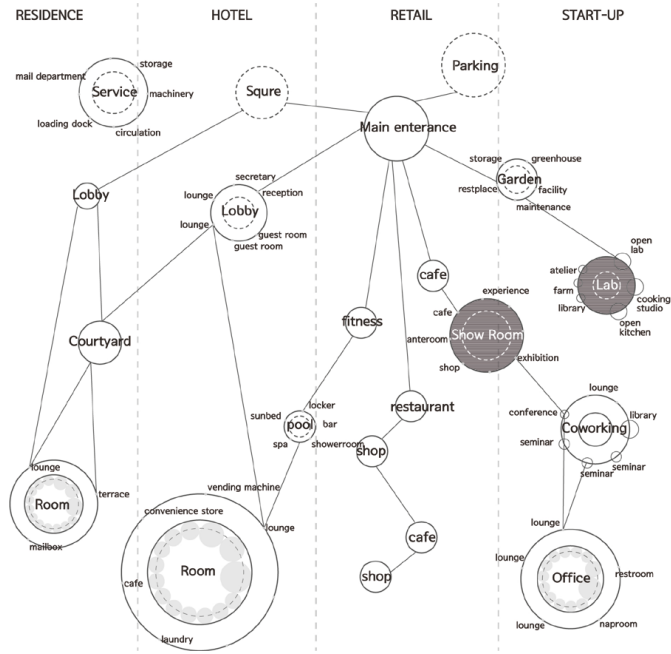


second floor plan

- 01. Central square / Lobby
- 02. Residence
- 03. Side square / Open stage
- 04. Lobby\_Craft Dept
- 05. Lab\_Media Dept
- 06. Open Kitchen\_Food Dept
- 07. Office\_Agriculture Dept
- 08. Restaurant\_Food Dept
- 09. Side Square / Garden
- 10. R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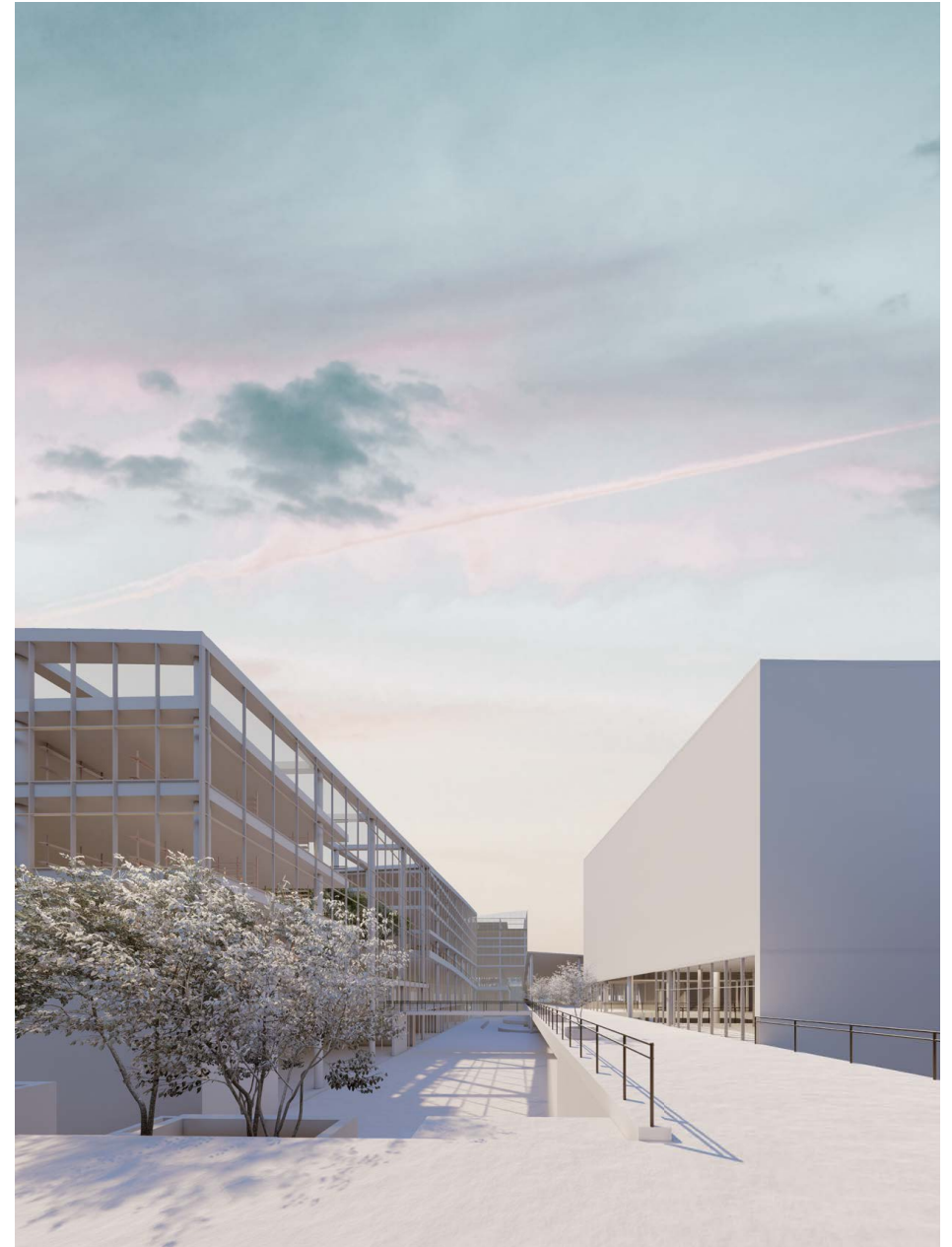
이 제안은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오픈스페이스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공공광장으로써 거리를 설계한다. 계획의 양끝은 건물의 앞마당이자 서소문공원과 서울로, 만리광장과 연결점인 광장과 공원이 있고, 끝을 연결하는 내부도로 양 옆으로 스타트업이 위치한다. 방문자들은 거리를 지나며 각 스타트업의 **lab(open kitchen, urban farm, fablab)**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되고 **showroom(food court, plant display, craft market)**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중앙의 광장은 세갈래의 길을 연결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공동 로비로서 기능한다. **LVO**의 스타트업 랩과 소름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모이고 헤어지는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만남이 있고, 이벤트가 있다. 머물면서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서 지역이 없던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 Program design ]



▲ 현재 부지에서 진행중인 대형개발계획의 오피스, 레지던스, 호텔, 리테일 네가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각 주체 간의 공유공간을 만들어 마찰 빈도를 높리며 각 공간을 이어주는 길이 장소를 잇는 동시에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 서울로 리노베이션을 기점으로 사이트의 만리동 골목길재생 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다. 이는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스타트업 클러스터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 시킨다.



**RESIDENCE**

스타트업, 서울역  
중사자와 마을에 주거  
공급

**MEDIA**

각 스타트업의 미디어  
거점

**ART / CRAFT**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클러스터 전시공간 공유

**FOOD**

만리동 재생사업과  
청파로 골목 활성화

**AGRICULTURE**

서울로, 서소문 공원을  
연결하는 녹색 보행로  
조성, 음식 스타트업  
과의 연계

**OFFICE SHARE**

서울역 부근 회의실,  
오피스 렌트의 수요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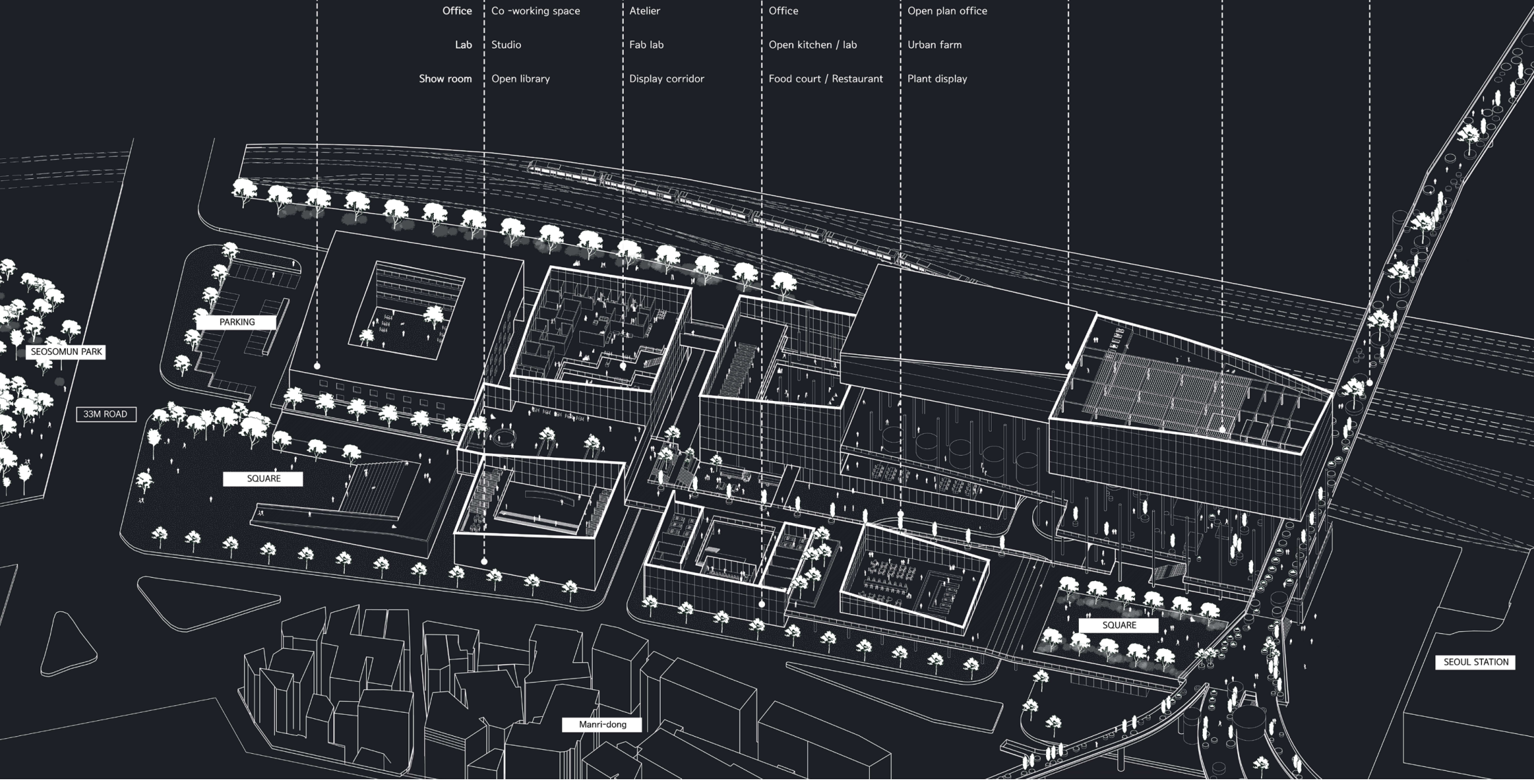
**BUSSINESS HOTEL**

지방정부, 해외에서  
서울로 오는 출장객과  
관광객의 숙소

**SEOUL LO**

서울로 중심으로 동서의  
균형을 맞추고 골목길  
도시재생의 발판 마련

- |           |                  |                  |                         |                  |
|-----------|------------------|------------------|-------------------------|------------------|
| Office    | Co-working space | Atelier          | Office                  | Open plan office |
| Lab       | Studio           | Fab lab          | Open kitchen / lab      | Urban farm       |
| Show room | Open library     | Display corridor | Food court / Restaurant | Plant display    |



## BOX OF COMMUNICATION

RESIDENCE WITH LIFECYCLE YARD

LH COMPETITION 2019 GROUP WORK

CONTENT : LIFE CYCLE RESEARCH, COMMUNITY LIVING TYPOLOGIES, MASS DESIGN, RESIDENCE UNIT DESIGN, MULTI-USE PROGRAMMING, PLAN DRAWING, 3D MODELING, RENDERING

도시 아파트는 전통적인 마을구조와 달리 가구별로 서 이웃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도시환경에서 공동체생활이 어려운것은 단순 커뮤니티 시설, 마추침의 기회가 부족한 것일까? 도시에서 우리는 마을에서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 공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마추침에도 역설적으로 소통의 부재와 이웃 간의 단절의문제를 앓고 있다.

도시와 같은 고밀도의 인구환경에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면서 상호 간섭과 감사가 늘어 관계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다. 이웃은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도시생활에서 마찰을 겪는 사람들은 소극적인 이웃관을 형성하여 내가 일부러 다가가는 이웃과의 접촉이 불필요하다고 느낀다.

이에 대화의 상자는 대규모 커뮤니티시설에서 일대 다수의 만남이 아닌, 소규모 마을들을 먼저 만들어 줌으로써 각 거주자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마을, 커뮤니티에 스며들 수 있게 했다. 각 마을과 유닛은 생애주기별 변화하는 유닛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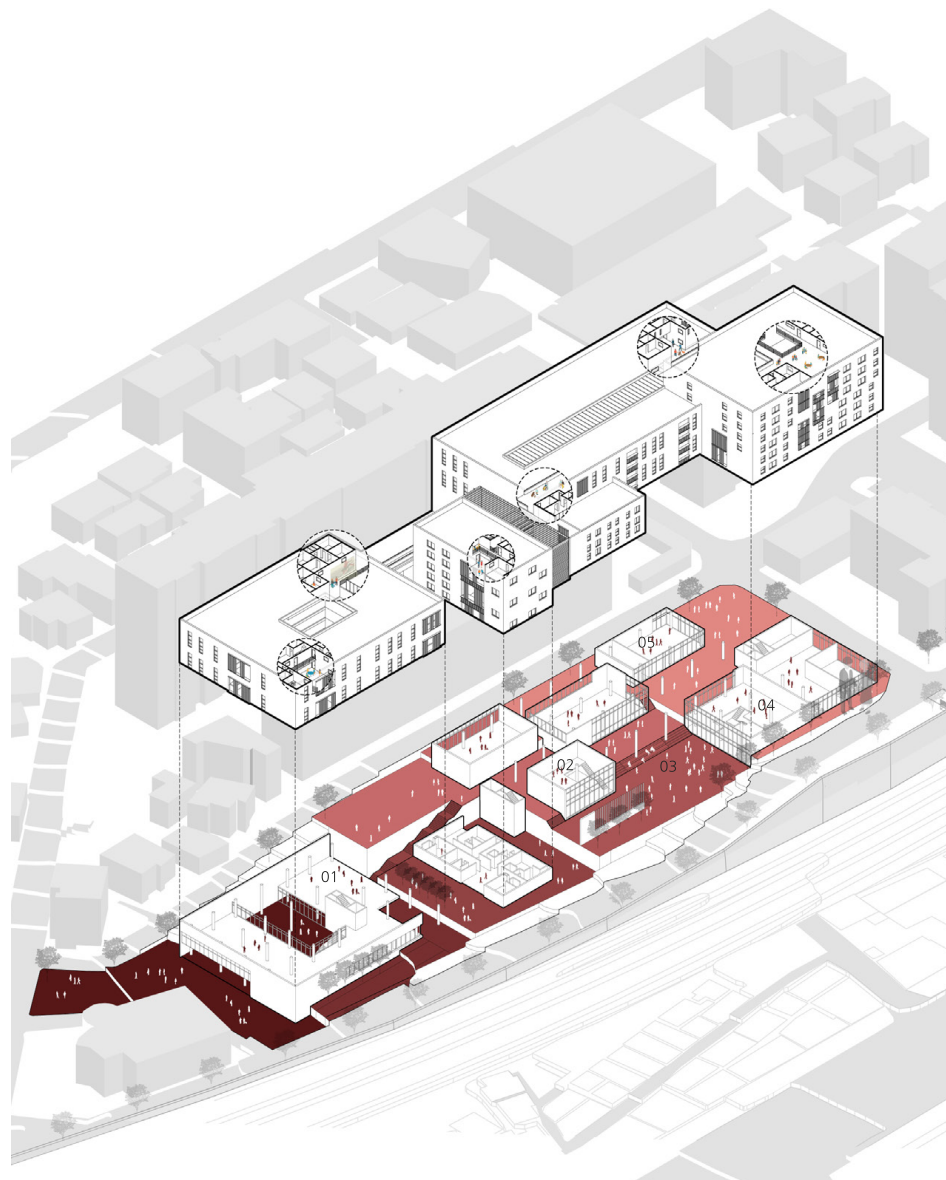




Second Floor Plan ①

- 01. Unit\_formative period
- 02. Yard\_formative period
- 03. Unit\_growth period
- 04. Yard\_growth period
- 05. Unit\_reduction period
- 06. Yard\_reduction period
- 07. Unit\_plateau
- 08. Yard\_plateau
- 09. Public yard

생애주기 별 특성을 마당설계에 반영하여 마당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들은 전체 매스의 중앙공용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서 각 세대간의 교류도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 보이드 구간에 배치된 공용커뮤니티 시설에서 책읽기, 피크닉, 보드게임, 취미 공유등의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내부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외부 주민과 만나는 공간인 중앙마당, 동,서부 커뮤니티 시설에서 외부 커뮤니티로 이어진다.



- 01. Basement cafe / pub
- 02. Kindergarden
- 03. Central square
- 04. Cafe
- 05. Retail

집합주거에서 지속가능한 건축은 결국 내부의 공간적인 구획이 아닌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 단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거주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내부부의 커뮤니티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커뮤니티가 단지 전체로 익히고, 단지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공간에서 거주동네 까지 익히면서 단단한 조직을 형성한다. 이에 더해 생애주기의 분석과 주거 동향파악을 통해 다변하는 주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미추홀구에 하나의 지속가능한 건축이 들어설 수 있음을 기대한다.



▲ [PHASE 1] 형성기 마을 마당 - 소규모 마을 커뮤니티의 형성



▲ [PHASE 2] 중앙 아트트리움 - 마을끼리의 커뮤니티 공유



▲ [PHASE 3] 중앙 마당 - 주거단지 내외부의 커뮤니티 연결



# DOSS HOUSE GUEST HOUSE

URBAN REGENERATION CHANGSIN

FALL 2016 PERSONAL WORK

CONTENT : CHANGSIN DISTRICT RESEARCH, LIVING TYPOLOGIES, ECONOMY AND BUILDING EVOLUTION RESEARCH, MASS DESIGN, RESIDENCE UNIT DESIGN, URBAN REGENERATION PROGRAMMING, PLAN DRAWING, 3D MODELING, REND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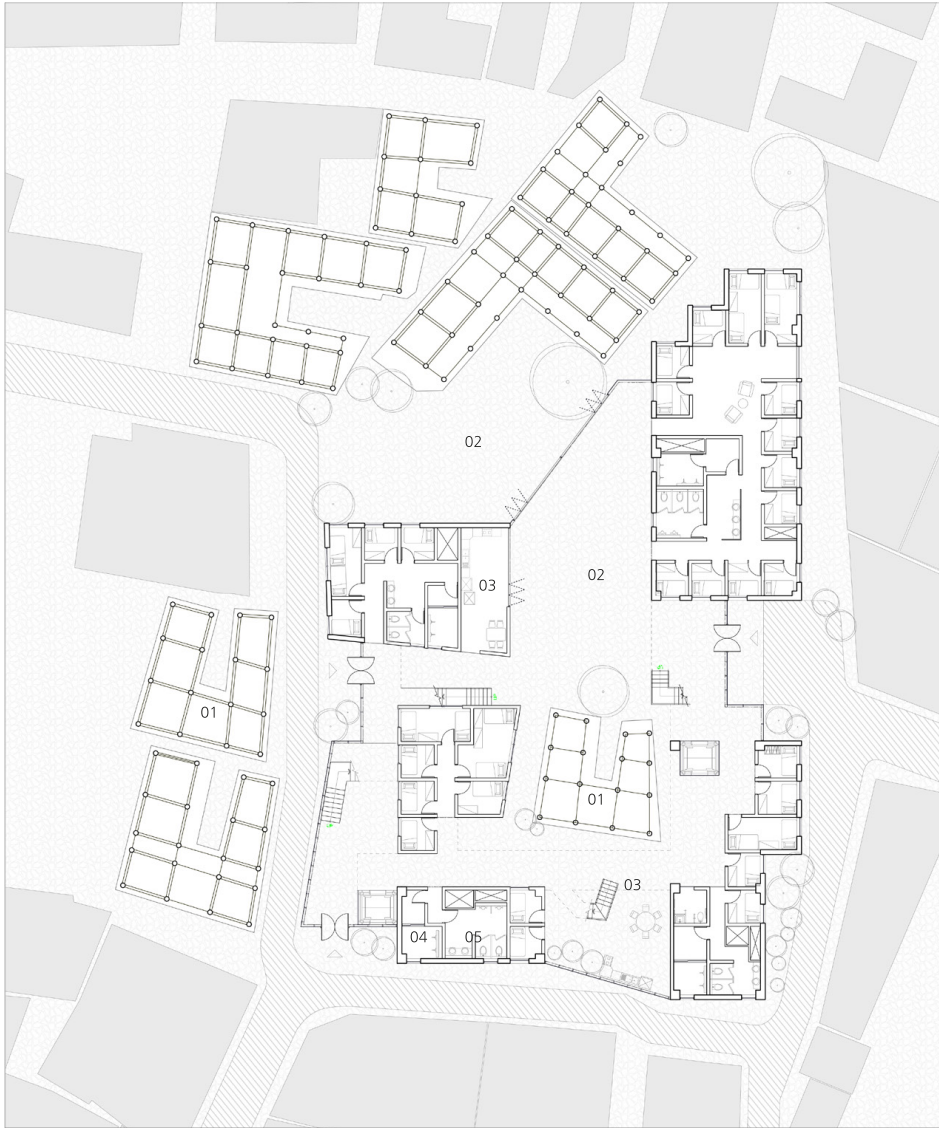
창신동 쪽방촌은 거주인구가 약 300명으로 서울에 5군데의 큰 쪽방촌 중에 하나며 그 중 대부분이 일할 형편이 안되어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연결하는 도시재생의 성격을 띄게 된다.

현재 사이트에는 거주자 / 판매자 두 주요한 행위자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이트 내에서 서로 연결되거나 무엇을 공유 하지 않는다. 대로변은 활기가 넘치는 상업 지구 이지만 안쪽은 사람들이 적고 어두워 상반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내부의 보존되어있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며 주변에 낡은 건물들을 주거지와 게스트 하우스로 재건축한다. 현지인 들은 그 곳에 함께 살게 될 것이나 주거지는 게스트 하우스와 분리된다.

그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함으로써 그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고 social actor로서의 지위를 갖게된다. 동시에 그들은 외로움을 풀이는 커뮤니티를 갖게 되고 관광객의 증가로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로 전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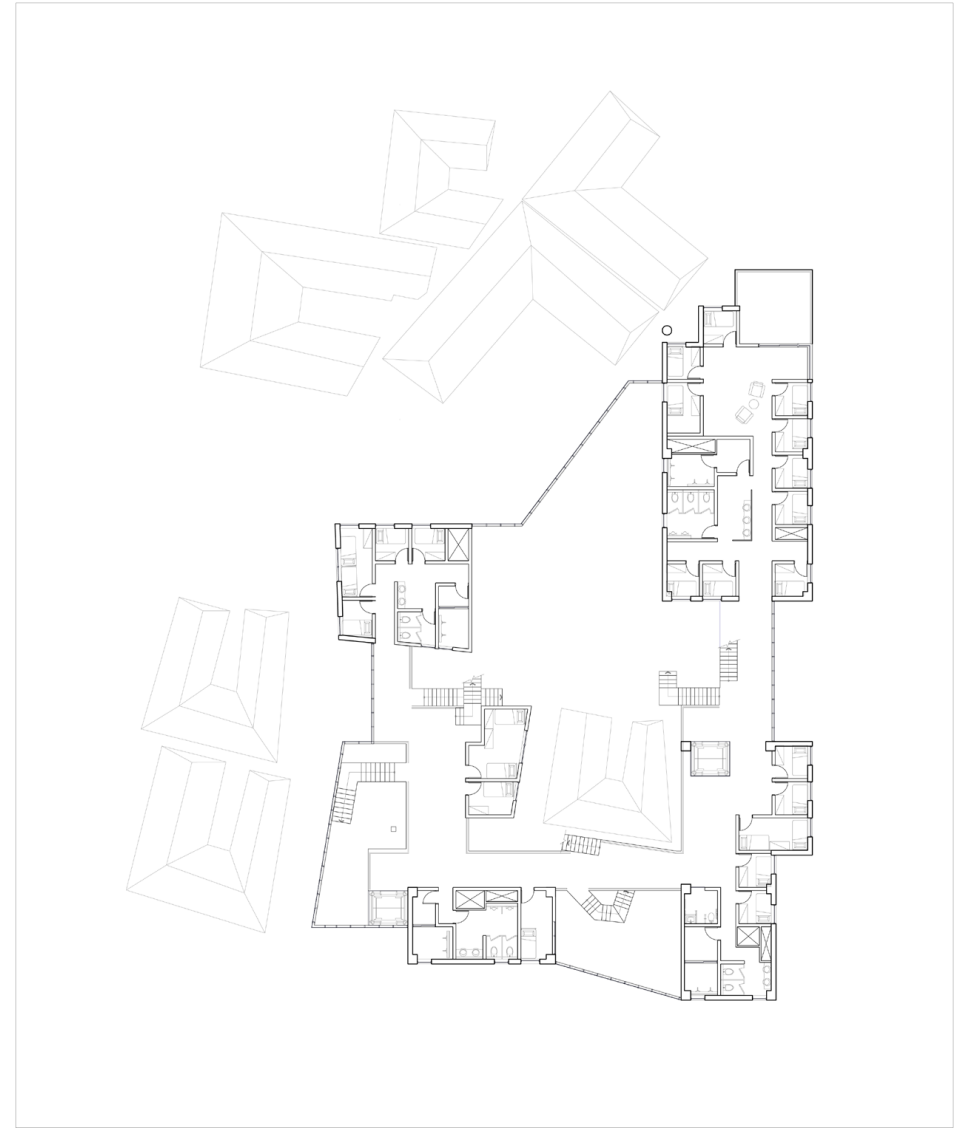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

- 01. Hanok guesthouse
- 02. Central square
- 03. Open kitchen
- 04. Shower room
- 05. Rest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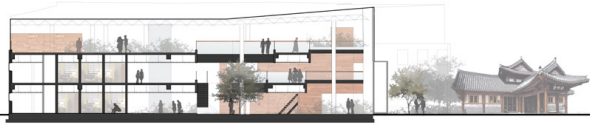
내부의 보존되어있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며 주변의 낡은 건물들을 주거지와 게스트하우스로 재수선한다. 단지 외부에 있는 한옥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며 단지와 공용마당을 가지게 된다. 방문객들은 로컬들과 함께 마당에서 어울리지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로컬들은 그 곳에 함께 살게 될 것이나 주거지는 게스트하우스와 분리된다.



Second Floor Pl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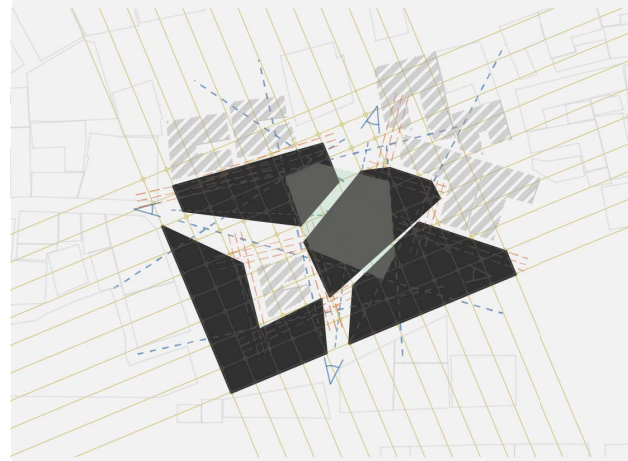


Section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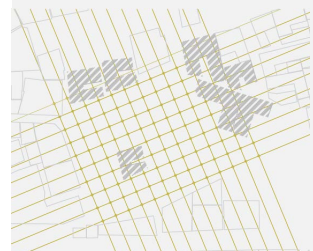


Section bb'

[ Mass design ]



◀ 현 사이트에서 주거에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햇빛, 시야 그리고 한옥게스트에 필요한 한옥의 위치와 한옥의 칸 개념을 바탕으로 그리드를 그리고 매스의 선을 잡았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노란선이 해의 방향, 박스 하나가 한 '칸'을 의미하고 한칸의 사이즈는 2300x2300 이다. 파란선은 외부에서 보이는 시야로 이 부분에 공용공간을 만들어 외부 게스트가 한옥게스트 하우스를 보다 잘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빨간선은 한옥의 경계로 한옥의 바탕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cell size / sunligh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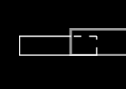
hanok boundary



[공용공간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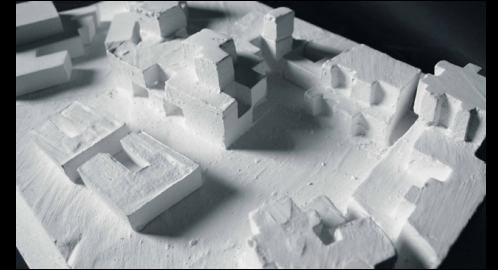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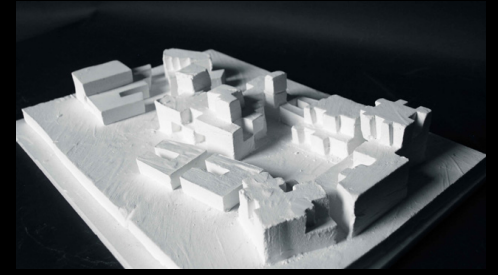


[박스의 공간분할]



[기존건물과 연결]

케이스스터디에 의한 세 가지 초기 개념. 이 프로젝트는 생활에 관한 것이므로 다양한 공용 공간을 실외에 제한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쌓인 박스매스는 거주자에게 생활 공간을보다 즐겁게 만드는 공용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과 게스트하우스 사이의 큰 공용 공간이 그들을 연결시켜 줄 것이다.



기본적인 형태의 한옥



현대 건축물



확장된 형태의 한옥



한옥과 현대건축물의 확장 가능성

